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10. 12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2. 계획의 의의 및 수립경위 4
3. 계획의 범위 5

II. 동해안권 발전여건 분석

1. 동해안권의 일반 현황 9
2.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25
3. 동해안권의 잠재력과 위상 28

III.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 종합 분석과 과제 도출 33
 - 가. 종합적 분석(SWOT분석) 33
 - 나. 계획과제 도출 35
2. 동해안권의 비전 및 추진전략 36
 - 가. 비전 및 목표 36
 - 나. 추진전략과 지역별 특화방향 38
3. 추진전략별 기본구상 41
 - 가. (전략1)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41
 - 나. (전략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48
 - 다. (전략3) 국제관광 거점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57
 - 라. (전략4)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64

IV. 전략별 개발사업 계획

1. 개발사업의 발굴과 구성	75
가. 개발사업의 발굴	75
나. 개발사업의 구성체계	76
다. 개발사업의 변경	76
2. 전략별 개발사업 계획	77
가. (전략1)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77
나. (전략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91
다. (전략3) 국제관광 거점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103
라. (전략4)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안권 교류협력 강화	126

V. 집행관리 방안

1. 투자 및 재원조달	141
2.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추정	143
3. 사업추진 체계와 방식	145
4. 제도개선 사항	149
5. 홍보 및 마케팅	152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의의 및 수립경위

3. 계획의 범위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해안권 등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07.12)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목적 구현
 -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발전을 도모
- 3차원 지역정책*의 하나로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방향('08.12) 및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의 후속조치
 - 글로벌 시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개발권 전략을 구체화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5+2), 초광역개발권(4+a)

나. 계획의 목적

-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국가기간산업 및 에너지산업, 문화관광 자원 등이 우수한 동해안권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대로 육성
 - 동해안 일대의 풍부한 자연환경 및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방안을 마련하여 권역전체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동해안권을 대외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新성장축으로 조성
 - 해양·대륙의 쌍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국제 교두보 및 북방 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을 실현

2. 계획의 의의 및 수립경위

가. 계획의 의의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
 -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에 종합계획을 공동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결정
- 광역경제권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적 중장기 종합계획
 - 종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탈피한 개방형의 지역특화발전계획으로, 산업·관광·인프라 등을 총망라하여 계획에 반영
- * 동해안권 광역경제권 : 울산(동남권), 강원(강원권), 경북(대경권)
-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지역발전계획
 - 동해안권 3개 시·도가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상생발전을 위한 개발방안과 주요사업을 발굴·제시

나. 계획수립 경위

- 동해안권 3개 시·도가 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연구원·지방연구원 등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연구 추진('08.12)
- 지역별 주민공청회('09.9)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강원·경북이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입안('10.5)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10.5~1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종합계획을 최종 결정

3.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 동해안에 연접한 3개 시·도(울산, 강원, 경북)의 15개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 울산해안권 4개 구·군, 강원해안권 6개 시·군, 경북해안권 5개 시·군
 - 15개 시·군·구의 총 면적은 8,999km²(전국의 9.0%), 인구는 229만명(4.6%)

< 공간적 범위 >



		전체	해안권	시·군·구
계		46	15	
동해안권	울산	5	4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	18	6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경북	23	5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나. 시간적 범위

- ☐ 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10개년 계획으로서, 목표 연도를 '20년으로 설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일치
- ☐ 다만, 재정투자의 효율성, 사업성과 분석의 용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다. 내용적 범위

- ☐ 동해안권의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보유자원 등을 분석하고, 발전 잠재력과 바람직한 기능·역할을 검토
- ☐ 국토미래상과 연계한 동해안권의 장기비전 및 목표를 확립하고, 계획지표 및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
- ☐ 부문별 전략과 전략별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이들 개발사업간의 연계 방안 등을 설정
- ☐ 계획집행에 따른 투자계획,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방안, 집행관리 계획 등을 수립
- ☐ 계획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고,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

Ⅱ. 동해안권 발전여건 분석

1. 동해안권의 일반 현황

2.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3. 동해안권의 잠재력과 위상

1. 동해안권의 일반 현황

가. 일반적 특성

1) 지정학적 특성

-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태평양의 연해로 한반도의 동부, 일본의 서부, 러시아의 사할린 섬과 연해주로 둘러싸여 있음
 - 동쪽은 일본의 도호쿠 지방·홋카이도·러시아 사할린, 서쪽은 강원·경북·울산, 북쪽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경
- 동해안권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러-일의 환동해 경제권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 앞으로 극동러시아의 토지·자원, 한반도의 관광·산업기반, 일본의 시장·자본·기술 등 상호 보완관계 형성 가능

2) 역사·문화적 특성

- 역사적으로 한반도 동해안권은 활발했던 동북아 교류의 교두보이자,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지역
- 동해안은 고대로부터 문화가 융성했으며, 신라시대에는 도읍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석굴암·불국사('95년), 경주역사유적지구('00년), 한국의 역사마을-양동마을('10년), 세계무형유산으로는 강릉단오제('05년)가 있음

3) 자연환경

- 동해안은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달리 해안선이 단조로우며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갯벌 및 도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
 - 반면, 해안절벽, 해안단구, 석호, 해송림과 같은 동해안만의 독특한 자연지형과 해안식생이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 산악지형의 발달로 산림자원이 풍부

<해안선 및 도서현황 ('09)>

구분	해안선 (km)			도 서					
				도서수 (개소)			면적 (km ²)	세대	인구 (인)
	계	육지부	도서부	소계	유인	무인			
전 국	12,750.3	6,840.1	5,910.2	3,201	482	2,719	3,765.81	313,812	818,456
동해안권	933.8	784.1	149.7	82	3	79	73.35	4,522	10,160
울산해안권	155.1	149.8	5.3	4	-	4	0.04	-	-
강원해안권	329.7	294.1	35.6	32	-	32	0.30	-	-
경북해안권	449.0	340.2	108.8	46	3	43	73.01	4,389	9,550

- 동해안권에는 총 8,707km에 달하는 729개소(국가12, 지방717)의 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나 하천길이가 짧고 건기에는 수량이 부족
 - 태화강, 형산강, 남대천, 오십천 등이 동해로 유입
- 동해안권의 기후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서늘하며 태백산맥과 동해의 지형적 영향을 받음
 - '08년 기준 연평균 기온은 13.9℃, 연 강우량은 1,269.2mm로 전국 평균(1,028.3mm)에 비해 많은 편임
- 동해안은 파도가 높고 수온이 낮아 양식어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연근해 어업 형태가 주종을 이룸

나. 인문·산업환경

1) 인구변화

- '09년 동해안권의 주민등록인구는 229만 명으로 전국의 약 4.6%에 불과하며, 과거 5년('04~'09년) 간 약 4천명이 감소
 - 인구밀도는 253인/km²로 낮은 편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8%로 전국 평균 10.6%에 비해 다소 높음
- '08년을 기준으로 동해안권 3개 시·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2,590천인이며, 취업자 수는 2,535천인으로 실업률은 2.1%
 -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1.9%로 전국 평균(61.8%)과 유사하며, 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64.2%로 가장 높음

< 경제활동 인구 현황 ('08) >

(단위 : 천인, %)

구 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국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동해안권 3개 시·도	2,590	2,535	55	1,593	61.9	2.1
울산광역시	529	515	14	346	60.5	2.6
강원도	685	672	13	481	58.7	1.8
경상북도	1,376	1,348	28	766	64.2	2.0

2) 산업구조

- '08년 기준 동해안권 3개 시·도의 산업별 생산액 구성비는 1차 산업 4.0%, 2차 산업 48.9%, 3차 산업 47.1%를 차지함

- 전국 산업구조(1차:2.6%, 2차:28.0%, 3차 69.5%)에 비해 1·2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작음
- '99~'08년의 산업구조를 생산액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대비 2차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높으나 3차산업은 낮은 편임

<산업구조 변화 (당해년 생산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999년		2008년		연평균 증감률 ('98~'08)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전 국	1차산업	267,238	5.4	239,022	2.6	-1.1
	2차산업	1,386,167	27.9	2,576,425	28.0	8.6
	3차산업	3,316,899	66.7	6,401,345	69.5	9.3
	계	4,970,304	100.0	9,216,792	100.0	8.5
동해안권 3개 시·도	1차산업	51,451	7.4	51,101	4.0	-0.1
	2차산업	312,384	44.9	625,783	48.9	10.0
	3차산업	331,720	47.7	602,294	47.1	8.2
	계	695,554	100.0	1,279,178	100.0	8.4

주1) 10명 이상 사업체수

주2) 1차산업 농림어업, 2차산업 광공업 및 제조업, 3차산업 그외 서비스업으로 분류

- 동해안권의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에 비해 2차 산업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이 높은 반면, 종사자 기준으로는 반대현상
- 2차 산업의 사업체수에 비하여 종사자수가 많은 것은 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08)>

(단위 : 명, 개소, %)

구 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전 국	29,140 (0.2)	2,112 (0.1)	3,295,718 (20.2)	321,810 (9.9)	12,963,422 (79.6)	2,940,860 (90.1)
동해안권 3개 시·도	4,396 (0.3)	358 (0.1)	455,591 (26.5)	29,593 (8.0)	1,256,076 (73.2)	338,450 (91.9)

주1) 10명 이상 사업체수

주2) 1차산업 농림어업, 2차산업 광공업 및 제조업, 3차산업 그외 서비스업으로 분류

3) 제조업

□ 동해안권에는 권역별로 특화된 제조업 기반이 갖춰져 있으나, 울산 및 경북 동해안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

- 전국대비 부가가치 비중 고려시, 석유정제품(51.2%)> 1차 금속(39.3%)> 기타 운송장비(3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3.7%) 순
- 울산은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전국대비 부가가치 비중 51%)', '기타 운송장비(38.6%)', '자동차트레일러(28.4%)' 등이 특화
- 경북은 '1차 금속제조업(30.8%)', '전자부품·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4.8%)' 등이 특화
- 강원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6.4%)', '음료제조업(4.7%)' 등이 특화

<특화제조업 현황 ('08년)>

(단위 : 개, 조원, %)

산업별	전국			동해안권 3개 시·도					
	사업체 (수)	출하액	부가 가치	사업체(수)		출하액		부가가치	
				개소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8	117	16	48	37.5	64	54.9	8.6	51.2
1차 금속제조업	2,337	127	33	353	15.1	49	38.4	13	39.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92	72	24	249	19.3	25	34.7	9.4	3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7	117	37	552	18.2	37	31.5	12	33.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71	99	24	355	15.6	27	27.4	6.2	25.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2	26	11	407	17.6	6.7	25.3	2.7	22.8

주) 시·도(시군구) 산업분류별 주요지표(10인 이상)

4) 농수산업

- 동해안권의 농가 비율은 10.0%로, 전국 평균(8.0%)에 비해 높으며, 어가 수는 전국의 13.1%를 점유
- 동해안권은 무공해·청정의 친환경 유기농 기반이 발달되어 있으며, 권역별로 특화된 수산자원 및 수산특산품이 풍부

5) 에너지산업

- 동해안권 3개 시·도의 발전설비와 발전량은 각각 전국의 21.4%, 21.6%를 차지하고, '09년 원전 발전량은 전국의 49.5% 점유
- 현재 운영 중인 국내원전 20기 중에서 10기(울진6, 월성4),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원전 8기 중에서 6기가 동해안권에 위치

<전력 및 원자력 발전 현황 ('08)>

구 분	전력 발전설비 및 발전량				원자력 발전량	
	발전설비 (MW)	비율 (%)	발전량 (GWh)	비율 (%)	발전량 (GWh)	비율 (%)
전국	72,491	100	422,355	100	150,958	100
동해안 3개시도	15,503	21.4	91,048	21.6	74,673	49.5

※ 운영 중 원자력 20기(고리 4기, 영광 6기, 울진 6기, 월성 4기)

건설 중 원자력 8기(신고리(부산) 2기, 신월성 2기, 신고리(울산) 2기, 신울진 2기)

- 동해안권 3개 시·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도 풍력, 수력, 연료 전지, 폐기물,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편
- '0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은 전국의 81%를 차지하며, 수력 36.6%, 연료전지 35.3%의 순으로 나타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08년)>

(단위 : TOE, %)

구 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전 국	28,036 (100)	61,128 (100)	426,757 (100)	93,747 (100)	660,148 (100)	4,367 (100)	4,568,568 (100)	15,726 (100)
동해안 3개 시·도	3,955 (14.1)	10,276 (16.8)	99,283 (23.3)	75,929 (81.0)	241,775 (36.6)	1,540 (35.3)	1,258,317 (27.5)	3,605 (22.9)
울산광역시	654 (2.3)	412 (0.7)	64,037 (15.0)	1 (0.0)	440 (0.1)	4 (0.1)	560,932 (12.3)	190 (1.2)
강 원 도	1,744 (6.2)	1,299 (2.1)	27,268 (6.4)	57,174 (61.0)	207,597 (31.4)	0 (0.0)	411,165 (9.0)	2,335 (14.8)
경상북도	1,557 (5.6)	8,565 (14.0)	7,978 (1.9)	18,754 (20.0)	33,738 (5.1)	1,536 (35.2)	286,220 (6.3)	1,080 (6.9)

다. 관광 기반

1) 자연관광 자원

- 4개의 국립공원(경주·설악산·오대산·주왕산), 8개의 도·군립공원, 11개의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자연관광자원이 분포
- 동해안권에는 총 22개소(강원11, 경북8, 울산3)의 온천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18개의 석호가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에 집중
- 동해안권에는 29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12개의 어촌체험마을, 10개의 자연생태우수마을이 분포

2) 역사문화 자원

□ 동해안권은 신라천년의 고도인 경주, 특징적 유교문화권을 형성해 온 강릉 등을 비롯하여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풍부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동해안 3개 시·도 전체로는 전국의 22.9%에 해당하는 총73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안권에만 국한해서도 전국의 10.3%에 달하는 330건의 문화재를 보유
-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동해안권에는 전국의 5.7%에 해당하는 268건을 보유
- 특히,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국내 9건 중에서 동해안권에만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3건 입지

<지정 문화재 현황 ('08)>

(단위 : 점, %)

구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자료			
전국	10,568	3,212	313	1,585	550	393	114	257	4,695	2,221	440
동해안 3개시·도	2,368 (22.4)	737 (22.9)	66 (21.1)	343 (21.6)	143 (26.0)	95 (24.2)	9 (7.9)	81 (31.5)	930 (19.8)	636 (28.6)	65 (14.8)
동해안권 소 계	808 (7.6)	330 (10.3)	38 (12.1)	125 (7.9)	98 (17.8)	35 (8.9)	28 (24.6)	6 (2.3)	268 (5.7)	193 (8.7)	17 (3.9)
울산해안권	93	15	2	4	4	4	1	0	58	16	4
강원해안권	232	65	2	29	14	11	7	2	101	60	6
경북해안권	483	250	34	92	80	20	20	4	109	117	7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

구 분	유산 내역
문화유산 (9건)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기록유산 (7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무형유산 (7건)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자연유산 (1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잠정목록 (6건)	공주무령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 동해안권에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강릉단오제, 동해별신굿, 풍어제 등 해양 특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잘 보존·전승하고 있음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05.11)
- 동해별신굿은 동해안 일대의 마을마다 전해오는 마을 수호와 풍어를 비는 마을 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85.2)

3)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관광단지는 전국의 27개소 중에서 동해안권 3개 시·도 전체에는 13개소(48.1%), 동해안권에만 국한할 경우에는 4개소(경주시의 보문·감포·마우나오션, 울산광역시외의 강동)가 지정
- 관광특구도 전국 26개소 중에서 4개소(강원 설악·대관령, 경북 백암온천·경주)가 동해안권에 위치

<관광개발 현황 ('09)>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개소	비율 (%)	지정 개소	비율 (%)	지정 개소	비율 (%)	면적 (km ²)	비율 (%)
전국		232	100	27	100	26	100	3,582	100
3개시·도	소계	70	30.2	13	48.1	4	15.4	1,497	41.8
	울산		0.0	1	7.7		0.0	-	-
	강원	40	17.2	7	25.9	2	7.7	1,462	40.8
	경북	30	12.9	5	18.5	2	7.7	34	1.0
동해안권	소계	24	10.3	4	14.8	4	15.4	1,497	41.8
	울산	-	-	1	3.7	-	-	-	-
	강원	18	7.8	-	-	2	7.7	1,462	40.8
	경북	9	3.9	3	11.1	2	7.7	34	1.0

□ '09년 현재 전국 유료관광객중 동해안권 관광객수는 3,079만명으로
전국의 10.4%를 차지

○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3만명(15.2%)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전국비중(10.2%) 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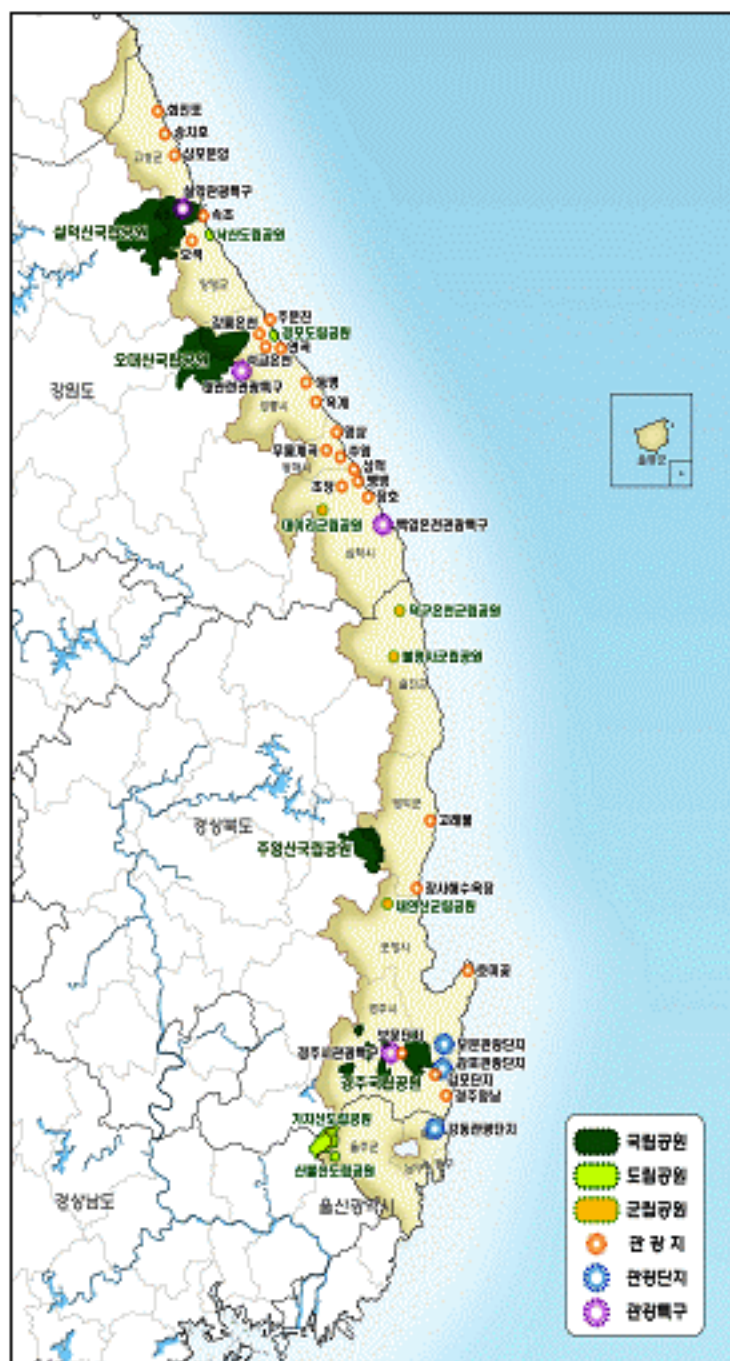
<관광객 현황 ('08년)>

(단위 : 만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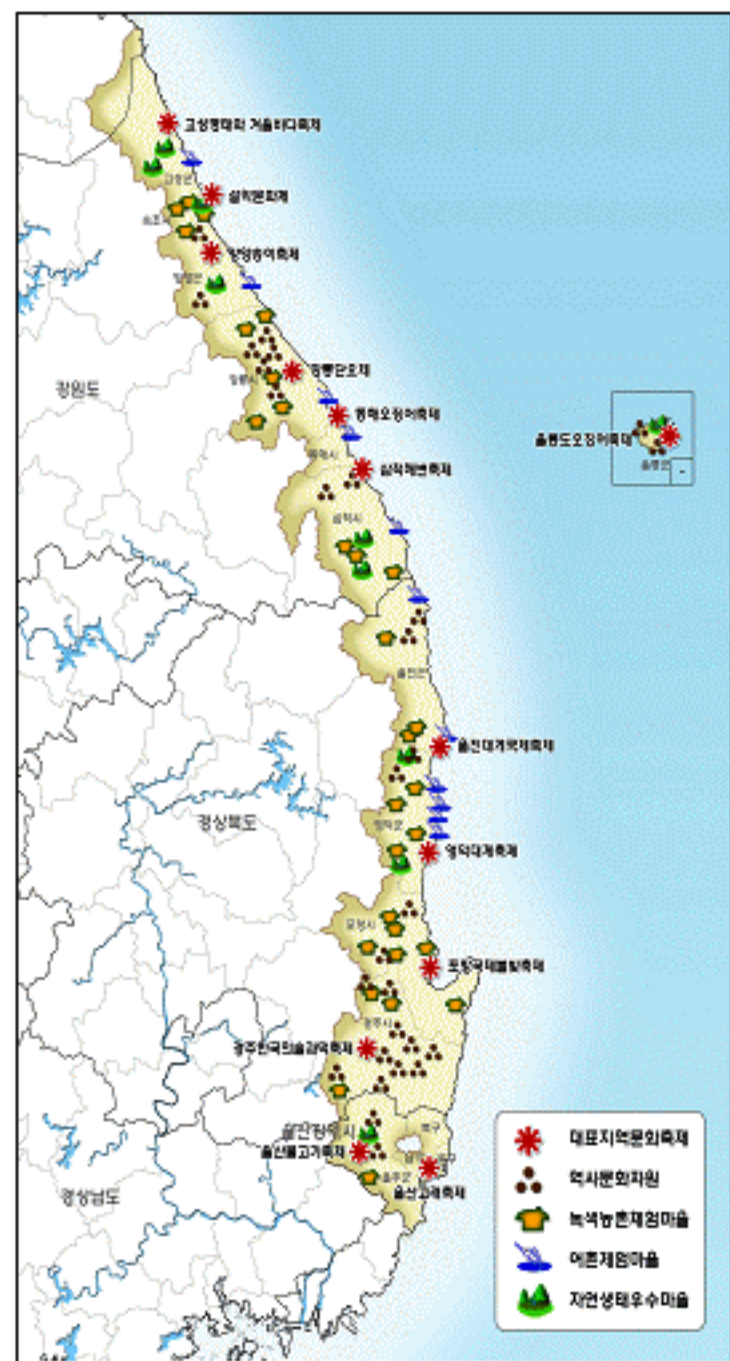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유료관광객						무료관광객	
				소 계		내국인		외국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 국		73,853	100	29,666	100	28,856	100	810	100	44,187	100
3개 시도	소계	19,060	25.8	7,183	24.2	6,983	24.2	201	24.8	11,877	26.9
	울산시	1,253	1.7	141	0.5	109	0.4	31	3.9	1,113	2.5
	강원도	9,221	12.5	4,653	15.7	4,551	15.8	103	12.7	4,567	10.3
	경북도	8,586	11.6	2,389	8.1	2,322	8.0	67	8.2	6,197	14.0
동 해 안 권	소계	10,920	14.8	3,079	10.4	2,956	10.2	123	15.2	7,841	17.7
	울산 해안권	1,242	1.7	140	0.5	109	0.4	31	3.8	1,102	2.5
	강원 해안권	5,810	7.9	1,909	6.4	1,863	6.5	46	5.7	3,901	8.8
	경북 해안권	3,868	5.2	1,030	3.5	984	3.4	46	5.7	2,838	6.4

4) 지역축제

- '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축제 중 강원 양양 송이축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축제, 울주 외고산 용기축제, 울산 쇠부리축제 등 4개가 동해안에 해당
- 그 외의 지역별 축제는 울산해안권 18개, 강원해안권 47개, 경북 해안권 34개가 개최되고 있거나 계획 중임



<관광지 현황>



<인문관광자원 현황>

5) 해양레저

- 해양스포츠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동해안권에는 7개 시·군·구에 총 9개의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 마리나항이 지정되어 있음
 - 거점형은 육상과 해상 항만시설을 신규로 개발하는 중·대형 규모로 포항 후포가 해당
 - 레포츠형은 기존 항만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중·소형 규모로 울산 고늘 및 진하, 강릉, 속초, 삼척 덕산, 양양 수산, 포항 양포
 - 리조트형은 중·대형 복합레저공간을 갖춘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계획 (‘10)>

마리나명		개발구역	개발유형	개발규모(척)		
				계	해상	육상
경북권 (3개소)	양 포	국가어항	레포츠형	100(36)	50(36)	50
	두 호	무역항	리조트형	200	100	100
	후 포	연안항	거점형	300	150	150
울산권 (2개소)	고 늘	기타연안	레포츠형	100	50	50
	진 하	기타연안	레포츠형	100	50	50
강원권 (4개소)	강 릉	국가어항	레포츠형	36(20)	36(20)	-
	속 초	무역항	레포츠형	100	50	50
	덕 산	기타연안	레포츠형	100	50	50
	수 산	국가어항	레포츠형	60	60	-

* ()은 개발하여 기 운영 중

라. 사회간접자본시설

1) 도 로

- 동해안권의 총도로연장은 약 7,515km로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속국도 등 간선도로망은 미흡

- 도로포장률은 69.4%(전국 평균 78.5%), 도로밀도도 0.84km/km²(전국 평균 1.03km/km²)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도로시설 현황 ('08)>

구 분	도로연장 (km)	포장도로 (km)	포장률 (%)	도로밀도 (km/km ²)	인구 (천 인)	천인당 도로연장 (km/천인)
전 국	103,019.0	81,821	78.5	1.03	49,540	2.08
동해안권	7,515.0	5,451.0	69.4	0.84	2,290	3.28

□ 동해안권의 주요 횡축(동-서)은 영동고속국도와 대구-포항간 고속국도, 종축(남-북)은 동해선(동해~강릉 56.1km), 울산선(14.3km) 정도임

- 동해안권의 남-북 전체 종단 도로는 국도 7호선이 유일하여 역내 교류 및 타 지역과 연계에 매우 불리

<검토·추진 중 및 계획도로 현황 ('08년)>

구 분	사 업 명	연장
고속국도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구간 신설	51km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 구간) 신설	153km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 차로 확충	27km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구간 신설	19km
	동서고속도로(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신설	300km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	54km
	동서 고속도로(평택-제천-삼척) 신설	250km
	동서 고속도로(당진-천안-영주-울진) 신설	269km
	울산-함양 고속도로 신설 (동서 8축 지선)	150km
국 도	경주-감포 간 국도 4호선 확장	8km

□ 현재 남-북 종단노선 등 다수의 간선도로망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접근성 향상이 기대됨

○ 장래 국도 7호선을 활용한 아시안 하이웨이(AH)* 연결, 동해선 철도를 활용한 TCR, TSR 연결 등 대륙 연계교통망 구축 전망

*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하는 고속도로(길이 14만km)로 국제연합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추진(8개의 간선과 지선으로 구성)

2) 철 도

□ 동해안의 철도망은 강원 남부권 및 경북 북부권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 주요 철도는 동해남부선(포항~부산), 영동선(강릉~영주), 중앙선(서울~경주) 등 3개 노선 및 9개 지선이 있음

○ '08년말 현재 동해안권의 철도 복선화율은 5.2%로 전국 평균 42.4%의 1/8 이하 수준

<주요 철도 노선>

구 분	구 간	주 요 역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포항역, 경주역, 울산역 등
영동선	영주-강릉	강릉역, 정동진역, 묵호역, 동해역 등
중앙선	서울-안동-경주	모량역, 건천역, 아화역 등

□ 고속철도 경부선(경주 및 울산 경유) 2단계 건설사업은 완료('10.11) 되었으며, 원주(중앙선)-강릉(영동선) 구간 복선전철화, 동해남부선 부산-포항간 복선전철화 등이 추진 중

○ 이 밖에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단선철도 부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검토·추진 중 및 계획 철도 현황 ('08년)>

구 분	사업명	노선연장
일반철도	원주(중앙선)-강릉(영동선)간 복선전철화 사업*	120.0km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	72.1km
	동해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사업	73.2km
	동해선 포항-삼척간 단선철도 사업	171.3km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철도 사업	110.2km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	95.1km
	대구선 동대구-경주 복선전철화 사업	70.2km
	울진-분천 단선전철 건설 사업	33.1km
	경북내륙선 김천-영덕 단선전철 건설 사업	133.5km

3) 공항·항만 및 물류

- 동해안권에 입지한 4개 공항 중 정상운영 중인 공항은 울산공항과 포항공항으로서 공항기능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
 - 양양국제공항은 '10.6월 현재 국제·국내 각 1개 노선씩만 운항 중이며, 울진공항은 민간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을 추진중
- 동해안권에는 무역항 7개, 연안항 4개 등 총 11개의 지정항만이 입지하며 포항 영일만항, 울산 신항 등 2개의 항만이 건설 중임
 - 울산항, 포항항 외의 항만은 대부분 시설이 낙후한 소규모 어항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등 거점항만 육성이 필요
 - 동해안권 7개 무역항의 하역능력은 전국의 약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항항, 울산항 및 동해항이 대부분을 차지

<지정항만 현황 ('09년)>

구 분	무역항	연안항	지정어항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전 국	29	25	224	90	134
동해안권	7	4	45	29	16
울산해안권	1	-	5	2	3
강원해안권	5	1	17	13	4
경북해안권	1	3	23	14	9

- 여객 부분의 경우, 속초항~러시아 자루비노항·블라디보스톡~일본 니이가타,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일본 사카이미나토항 등 2개의 국제여객노선이 운영 중
- 육지와 부속 도서를 연결하는 내항여객선은 동해시 묵호항~울릉도·독도 노선과 포항항~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 노선 등 총 3개 노선이 운영 중
- 물류단지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공급하여 물류거점망을 구축 중이나, 동해안권 3개 시·도의 공급면적은 전국의 약 10% 수준
- 전국 시·도의 물류단지 공급계획 면적은 총 1,145만㎡이나, 이 중 동해안권 3개 시·도의 공급면적은 111만㎡ 정도이며 대부분의 거점물류시설이 경부축에 집중

<시·도 물류단지 공급계획 ('08)>

(단위 : 만㎡)

행정구역	공급면적	행정구역	공급면적
전 국	1,145	울산시	15
경상북도	66	강원도	30

2.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가. 대외적 측면

1) 기후 변화 및 에너지·환경문제 심화

-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 지속과 기후변화 위기에 의해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대체 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 부각

2) 세계경제의 통합 및 블록화

-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화 및 지역경제권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
- 21세기 세계경제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3대 경제블록 간 경쟁과 각 블록 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가속화 전망

3) 국가 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간 경쟁시대로 전환

- 세계화의 진전 및 지방화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벗어나 복수의 행정구역 및 대도시권을 묶는 초광역적 지역개발전략이 중시
- 국제경쟁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경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간, 광역적 지역경제권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 지고 있는 추세

4) 동북아 주도권 경쟁의 심화

- 동북아 지역 내 금융, 물류, 지식, 관광산업 등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중·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한편으로는 유럽과 북미의 거대 경제권에 대응하는 한·중·일·러시아 등 극동지역의 환동해권 형성도 가속화될 전망

나. 대내적 측면

1) 인구증가율 감소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18년 이후에는 절대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노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20년에는 고령화율이 15.6%로 고령사회 진입 예상

2) 에너지원 확보 및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에너지 자원, 식량자원 등의 대외의존 심화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 증대 전망
- 국제환경 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에너지 절약형 국토구조 형성 및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성 증대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 (녹색성장위원회, '09.7.6)

3) 신성장동력 육성 등 지식기반경제체제의 확산

- ☐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 IT, BT, ET, CT 등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마련 필요

4) 삶의 질 및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 증대

- ☐ 소득 증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확대,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가치의 형성 및 삶의 행태 변화 예상
- ☐ 문화적·질적 성장, 사회적 자본 형성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증대

5)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의 본격 전개와 교통·생활혁명

- ☐ 경부·호남고속철도 등 고속 교통망의 확충으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화가 보편화
- ☐ 이에 따라 통근권, 경제·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동해안권의 잠재력과 위상

가. 동해안권의 잠재력 분석

1) 국가기간산업의 중추 역할

- ☐ 동해안권은 '60~'70년대부터 울산의 석유화학·자동차·조선산업, 포항의 철강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화를 주도
- ☐ 현재에도 동해안권의 주요 기간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한반도 에너지 공급 거점

- ☐ 동해안권의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
- ☐ 삼척의 LNG비축기지과 석탄·LNG 종합발전단지 건설, 경주와 울진, 울산의 원자력발전소 증설, 울산의 석유화학산업의 기반 강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역할이 증대

3)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개발 등에 유리한 인프라 구축

- ☐ 포항의 철강생산 및 경주·울진의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최적 기반
- ☐ 포스코연료전지·영덕풍력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과 포스텍·울산과학기술대학교·방사광가속기 등 관련 R&D기반이 양호
- ☐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동해안권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4) 최적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 동해안권은 바다, 강, 산 등 다양한 청정 천연 자연환경과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 자연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환동해권의 분업 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지대망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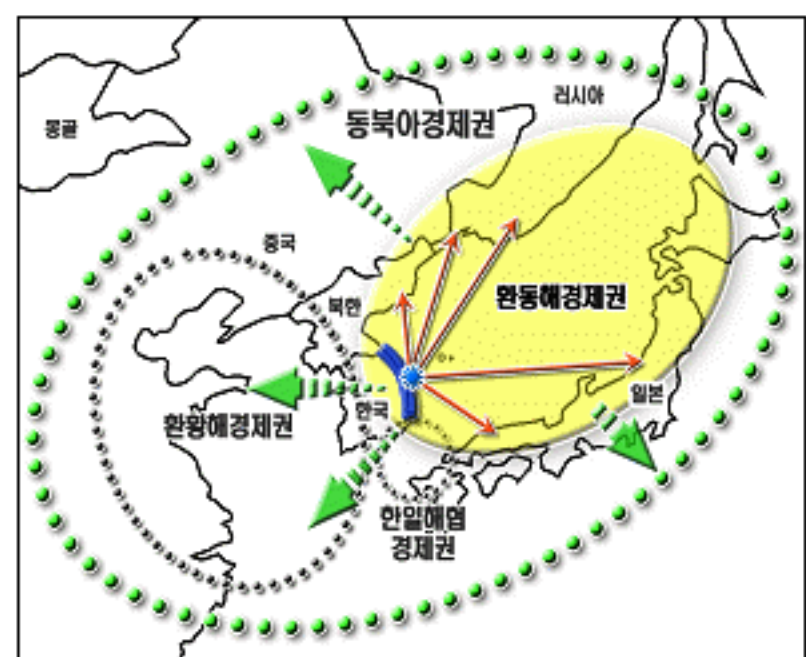
5) 환동해권의 지정학적 요충지

- 동해안권은 한-러-일과 북한을 둘러싼 환동해권의 요충지로서, 역내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 특히,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러시아 등 북방진출을 위한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입지 보유

나. 동해안권의 위상

1)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 3개국 (한국, 일본, 러시아)이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환동해권의 중심지대에 위치
- 세계경제 블록화 등의 경향에 따라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 및 교류·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동해안권의 지정학적 위치〉

2)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지대

- 현재, 동해안권은 울산의 조선·자동차·석유화학, 포항의 철강·부품 소재 등 국가기간산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앞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녹색화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산업지대로 재도약 기대
- 또한, 동해안권의 무공해·청정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지식·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 더욱 발달될 것으로 전망

3) 국가에너지 공급원 및 해양자원의 보고(寶庫)

- 원자력, 석유, LNG 등 국가에너지 공급의 중추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에너지 개발의 중심지대로 부상을 예상
- 또한,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과 더불어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서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환동해권 국제관광의 거점

-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유구한 전통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환동해권 관광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지님
- 우리나라 3개 해안권 중 수심이 가장 깊고 청정하며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국민들의 레저생활에 기여하는 관광 및 휴양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Ⅲ.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 종합적 분석과 과제 도출

2. 동해안권의 비전 및 추진전략

3. 추진전략별 기본구상

1. 종합 분석과 과제 도출

가. 종합적 분석(SWOT분석)

1) 기회 및 위협 요인

☐ 기회 요인(Opportunity)

- 화석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발전의 중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형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 발전전략을 추진
- 한-러-일이 연접한 환동해권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류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

☐ 위협 요인(Threat)

- 세계적인 고유가의 지속, 중동 불안의 상존 등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심화
-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기존 국가기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악화와 시장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성장정체 우려
- FTA체결 및 시장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

2) 강점과 약점

□ 강점 요인(Strength)

- 한-러-일을 둘러싼 환동해권의 지리적 요충지이며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지대이자 국가기간산업의 중추
- 원자력, 석유, LNG, 석탄 등 한반도 에너지 공급의 거점이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지대
- 청정 동해의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자원이 동해 심해에 부존하고 있음

□ 약점 요인(Weakness)

- 환동해권 국가 간 무역의존도는 높으나 권역 내 무역은 많지 않은 한계를 지니는 등 환동해권 역내 경제 교류는 미약
- 동해안권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권역내 접근성도 취약
- 강원도는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에 비하여 경제 및 산업기반이 거의 없는 편으로 산업기반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편임
- 동해안권에 입지하고 있는 기존의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압력 증가

<SWOT 분석>

외적요소 내적요소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녹색성장 전략 추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환동해권의 성장잠재력	주력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 악화 자원·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심화
Strength (강점)	환동해권의 지리적 요충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한반도 에너지 공급 거점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환동해권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거점 육성 청정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기간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지향적 산업기반 조성
Weakness (약점)	환동해권 역내 교류 미약 동해안권내 또는 다른 권역과의 연결 교통망 미흡 산업기반의 지역적 편중	환동해권 국제교류 거점 구축 해양·대륙 및 동-서연결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나. 계획과제 도출

- ☐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한반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 지속 필요
- ☐ 에너지, 해양자원, 신소재 등 핵심거점별로 환동해권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할 필요
- ☐ 산업간 연계 강화, 산업단지 확충, 신산업 육성, R&D 기능
보강 등으로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고도화 필요
- ☐ 지역간을 연계하는 융복합형의 자연·문화 관광루트를 구축하는
등 환동해권 국제 관광거점 조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 ☐ 부족한 간선교통망, 항만 등을 조기에 확충하여 내륙과 연계한
동해안지역의 발전 기반 조성 필요

2. 동해안권의 비전 및 추진전략

가.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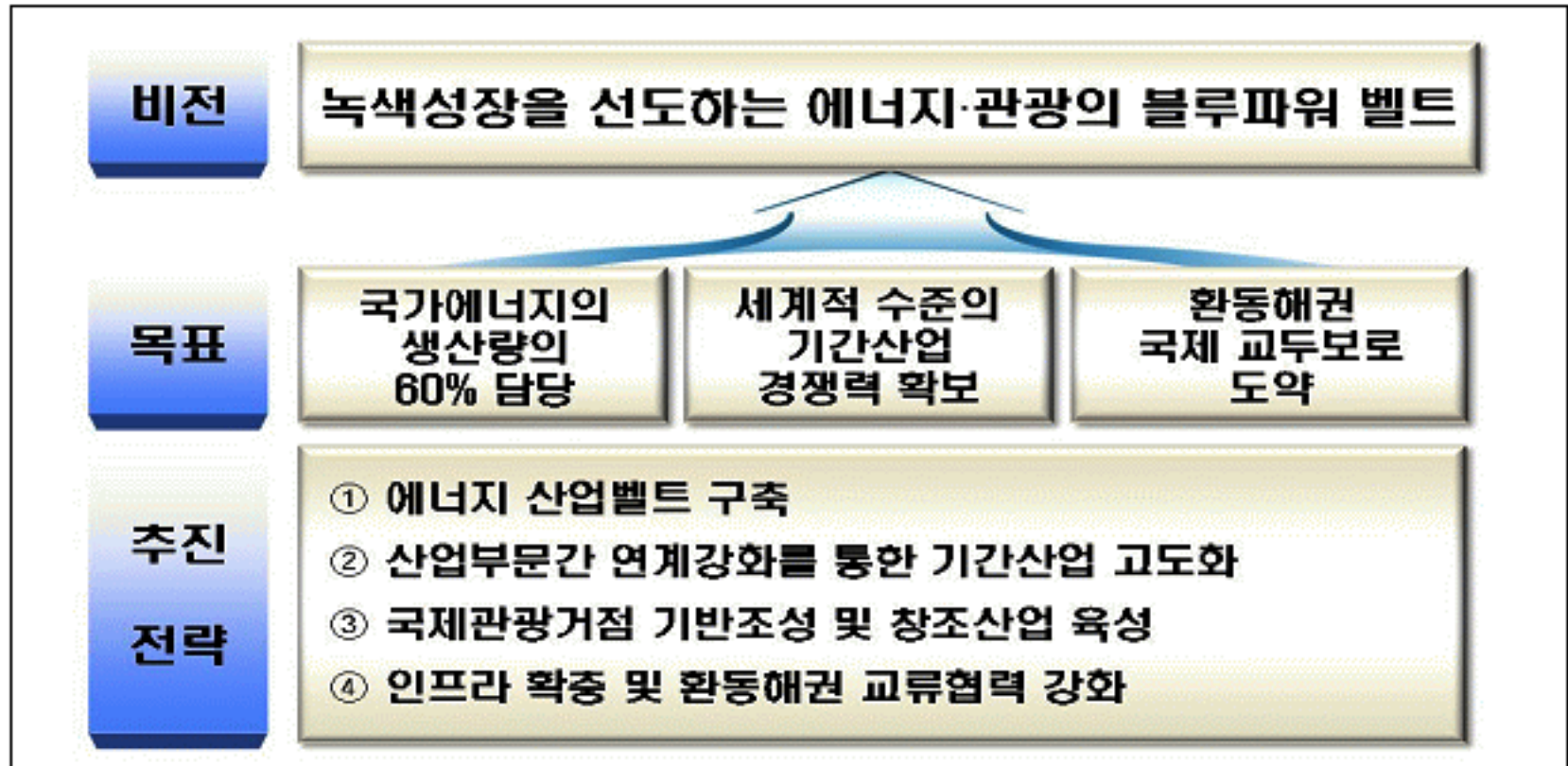
1) 비전 설정

- ☐ 지정학적 위치, 동해안의 기능과 역할, 녹색성장 등 정책기조 변화를 종합하면 동해안권 비전의 핵심적 주제는 환동해권, 청정해양, 녹색 에너지, 국가기간 산업, 해양자원 등으로 요약됨
- ☐ 비전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 벨트”

2) 목표 설정

- ☐ (목표1) 국가에너지 생산량의 60% 담당
 - 1차 에너지 생산량(전국대비 점유율) : 48%('08) → 60%('20)
 - 1차 에너지 생산량 : 19,377천toe('08) → 24,328천toe('20)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1,695천toe('08) → 3,893천toe('20)
- ☐ (목표2) 세계적 수준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확보
 - 제조업 총생산액 : 88조원('08) → 112조원('20)
 - 기간산업(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전국 점유율 : 37%('08) → 45%('20)
- ☐ (목표3) 환동해권의 국제 교두보로 도약
 - 외국인관광객 수 : 201만명('08) → 377만명('20)
 - 항 만 물 동 량 : 27,817만톤('08) → 33,587만톤('20)으로 확대
 - 북방교류 촉진 등을 위해 TSR·TCR등과의 연계교통망 조기 확충

<동해안권 발전방향>



<동해안권 발전 계획지표 (‘20년)>

계획지표(단위)			2008년	2020년	비 고
인구 경제	인 구	(천인)	2,290	2,290	동해안권
	GRDP	(조원)	146.4	268.1	3개 시·도
관광 휴양	외국인 관광객 수	(만인)	201	377	3개 시·도
	법정관광지수	(개소)	70	83	3개 시·도
산업 일반	제조업체수(10인이상)	(개소)	5,934	9,520	3개 시·도
	제조업 생산액	(조원)	88	112	3개 시·도
	서비스업 생산액	(조원)	60.2	111.7	3개 시·도
에너지 산업	1차 에너지 생산량	(천toe)	19,377	24,328	3개 시·도
	원자력 발전량	(GWh)	74,673	99,532	동해안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천toe)	1,695	3,893	3개 시·도
	LNG 저장량	(천㎥)	0	6,500	동해안권
	석유저장량	(천배럴)	13,900	20,400	동해안권
도로	도로 연장	(km)	23,583	28,854	3개 시·도
	1인당 도로 연장	(m/인)	4.5	6.0	3개 시·도
	고속도로 연장	(km)	884	1,447	3개 시·도
항만 물류	총 물동량	(천톤)	278,165	335,868	3개 시·도
	컨테이너 물동량	(TEU)	408,221	728,330	3개 시·도

나. 추진전략과 지역별 특화방향

1) 4대 추진전략

□ (전략1)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동해안권을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클러스터, 복합에너지 거점, 동북아 오일허브 등 「초광역 에너지 벨트」를 조성
- 녹색성장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도시·녹색교통 시범지역 등 「그린에너지 시범지역」을 육성
- 풍부한 해양에너지·해양자원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해양과학 클러스터, 해양자원 개발장비 연구단지, 해양에너지 생산단지 등 「해양연구·탐사거점」을 구축

□ (전략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부품·소재·자동차·조선 등 울산~경주~포항의 기간산업을 연계하는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구축
-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소재·해양바이오·심층수 등에 대한 R&D 중심의 「신소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 명품 농수산물 특산물을 고품질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유통·연계관광 등의 「청정 농수산물 특화벨트」를 육성

□ (전략3) 국제관광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 설악·경주·강릉·울릉 등 빼어난 관광지를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동해권 국제관광 교두보」로 구축
- 바다·산림·온천 등을 연계한 「휴양·레포츠 벨트」와 함께, 단오제·화랑도·고래 등 지역 고유문화자원을 토대로 「창조산업」을 육성
- 석호·단구·절벽 등 동해의 해안경관을 네트워크화하고, 인접한 백두대간과 하천 등을 활용,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

□ (전략4)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 내륙과의 동서연계와 권역내 남북연계를 강화하는 철도, 고속도로 등 「초광역 기간 교통망」을 구축
- 항만, KTX 역세권, 공단 등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거점 연계 교통망」을 확충
-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등 「환동해권 거점항만」을 육성

2) 지역별 특화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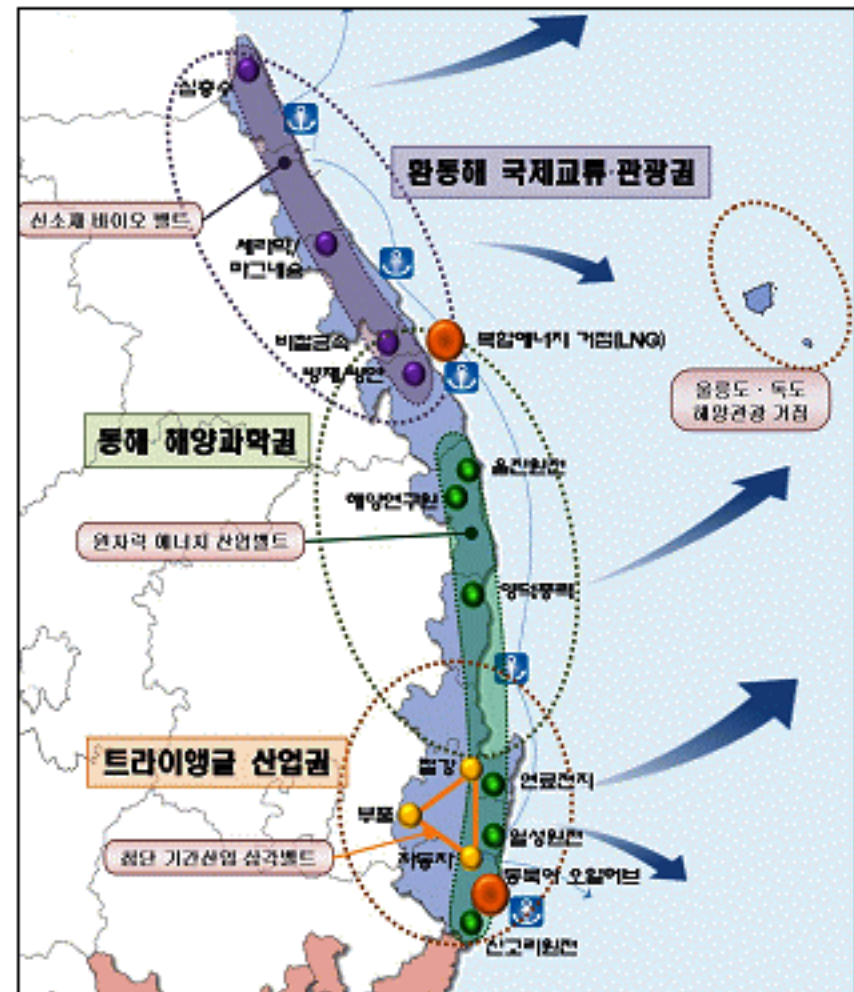
□ (강원 동해안권) 환동해 국제교류·관광권

- 설악·금강권, 강릉권, 백두대간 등의 자연환경과 해양경관을 활용한 융복합 국제관광지대화

- 마리나항 등 해양레포츠 기반 등을 바탕으로 가족중심의 체험 휴양 벨트 구축
- 남북통일 등을 대비하고, 러시아·북한 등 대륙진출 및 북방 교역의 거점지대화

□ (동해 중부권) 동해 해양 과학권

- 발달된 원자력, 풍력 등 에너지 기반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 거점지대화
- 포스텍 해양대학원, 한국 해양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 등 R&D기반 활용
- 해양과학콤플렉스, 한국지질 자원연구소 분원 등 해양 과학 기반을 지속 확충



<동해안권 발전 종합 구상도>

□ (울산·경주·포항권) 트라이앵글 산업권

-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석유화학, 철강, 부품소재 등 국가 기간 산업의 재도약 거점
- 양성자가속기,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 연구기반과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구개발 기능 강화
- 기존 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등 기간산업의 녹색화와 고도화로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추진전략별 기본구상

가. (전략1)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1) 현황 분석

□ 동해안권 3개 시·도는 전국 1차 에너지* 생산량의 48.0%를 담당하는 ‘국가에너지 공급원’의 중추지역

*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

○ 동해안권 3개 시·도의 전국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LNG(100%), 석탄(88.5%), 원자력(49.5%), 수력(41.1%) 순

< 1차 에너지 생산량 ('08년) >

(단위: 천TOE, %)

구 분	계		LNG		석탄		원자력		수력		신재생 및 기타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전 국	40,376	100	236	100	1,289	100	32,456	100	1,196	100	5,199	100
동해안권 3개 시·도	19,377	48.0	236	100	1,141	88.5	16,055	49.5	492	41.1	1,453	27.9
울산	862	2.1	236	100	-	0	-	-	-	0	626	12.0
강원	1,997	4.9	-	0	1,141	88.5	-	-	355	29.7	501	9.6
경북	16,518	40.5	-	0	-	0	16,055	49.5	137	11.5	326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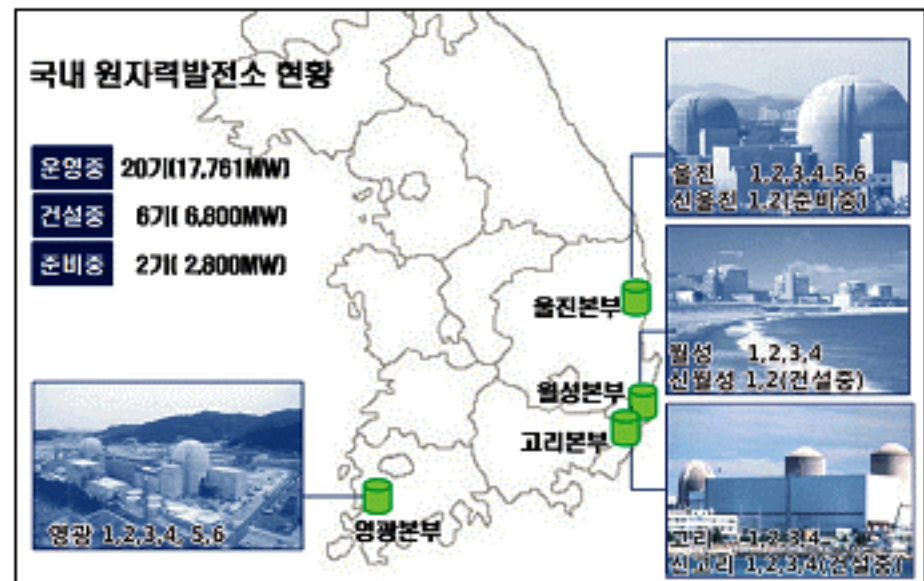
□ 특히, 경주, 울진 등을 중심으로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50%에 해당하는 10기가 동해안권에 가동 중임

○ 경주 월성, 울진, 울산에서 원자력 생산 및 원전 추가건설 중

-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 에너지소비에서 화석연료(84%) 다음으로 원자력(14%)의 비중이 높고, 전력생산량 중 절반을 원자력이 차지

- 국내 원전 총전력생산량은 150,958GWh로 이중 울진과 경주 월성의 전력생산 비율은 49.5%임
- 기후변화 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 강원동해안권은 석탄과 LNG를 융합한 복합발전산업 기반이 풍부하며 LNG 비축기지로서 부각되고 있는 실정

- 국내 LNG* 소비량은 연간 약 2,315만 톤으로 1차 에너지 중 13.3%를 차지하며, 편리성·청정성으로 연평균 29%로 급성장 하는 추세

* 천연가스는 수송방식에 따라 배관망으로 공급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와 배로 공급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구분되며, PNG방식은 러시아-유럽, 캐나다-미국 간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대만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로부터 선박을 이용한 LNG방식을 이용

- '13년까지 1조 3천억 원이 투자되는 삼척 LNG 제4인수기지의 최대 저장량은 280만㎥(1,329천톤)으로, 안정적인 LNG 수급에 기여 전망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단위: 만 ㎥)

구 분	운영 중(2006)	향후계획(2017)	계
인천기지	248(18기)	40(2기)	288(20기)
평택기지	100(10기)	256(14기)	356(24기)
통영기지	140(10기)	150(9기)	290(19기)
삼척기지	-	280(14기)	280(14기)
계	488(38기)	726(39기)	1,214(77기)

□ 동해안권은 전국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이 높으며, 천연가스와 하이드레이트 등과 같은 청정 해양에너지가 다량 부존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풍력 81.0%, 수력 36.6%, 연료전지 35.3% 순
- 울릉 분지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미국·일본·인도·중국·한국) 부존을 확인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

* 천연가스가 영구동토 또는 심해저의 저온·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얼음처럼 형성된 고체에너지원

□ 또한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은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기반시설과 우수 인력이 풍부

-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의 에너지공학부, 포항공대(POSTECH) 내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가속기연구소, 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 인프라를 보유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및 방폐장·방폐물관리공단 입지(경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국책 연구기관(울산) 이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이 동해안권에 집적될 것으로 예상
- 포항의 경우 국내 유일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보유하여 연료전지 분야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이 입지

2) 발전 방향

□ 원자력, LNG 등 기존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력 및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하여 청정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 에너지 생산기반과 연계하여 관련 R&D 인프라 및 연구 인력을 보강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발전기반 구축
- 지역별로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인 파급·확산 도모
- 국가간 해저자원 확보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선점할 수 있도록 해양연구·개발기반을 확충

3) 주요 프로젝트 구상

- 동해안권을 국가 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 에너지 벨트**」를 조성

- 경북 경주·울진, 울산의 원자력 기반을 토대로 생산·연구·실증 기능과 원자력 인력양성 기능이 복합된 「**국제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
- 삼척에 조성하게 되는 LNG인수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을 연계하여 화석 연료의 청정화를 위한 「**복합에너지* 거점**」으로 육성



<초광역 에너지 벨트>

*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석탄 가공을 통한 발전 및 화학공업용 원재료 추출 등), 가스가공 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울산의 정유산업을 기반으로 석유비축 인프라 등을 확대하여 동북아 석유시장을 주도할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 세계주요항로상에 위치한 석유의 집산지로, 상업용 석유 저장기지를 갖춘,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현물과 선물·장외거래 등 국제 석유거래시장

** 세계 3대 오일허브 : 미국(걸프연안) 109백만배럴, 유럽(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87백만배럴, 싱가포르(주룽) 55.6백만배럴 규모로 추정

- 포항의 철강 및 원자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하여 연료 전지산업기술 집적 및 실증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구축

- 태양전지 및 전지융합 연구·실증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를 조성

□ 녹색성장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그린에너지 시범지역」 육성

- 울릉도·독도에 지열·연료전지, 해양열 등 녹색에너지 기술을 보급하여 탄소저감의 「녹색 섬」으로 조성

-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영덕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체험을 위한 「그린블루 시범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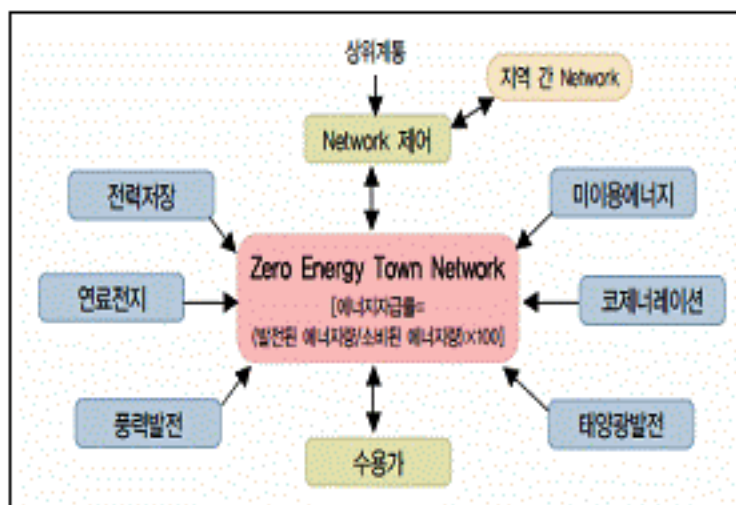
<그린에너지 시범지역>

- 울산의 전기, 수소자동차, 경북의 수소생산 기반 등을 활용하여 그린에너지 중심의 「울산·경북 수소자동차 시범도시」 조성

- 천연가스차량 부품·소재기업이 집적하고 인근에 LNG생산기지가 위치한 동해·삼척시를 탄소저감의 「천연가스 시범도시」로 조성
- 강릉단오제, 오죽헌, 경포대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청정자원 등을 활용하여 강릉을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로 조성

<해외사례 : 영국의 생태주거단지 베드제드(BedZED)>

- 소비되는 난방과 전력은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 모든 주택·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 단지내 열병합 자가발전소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생산



자료: 박순철, 외. 2005. "제로에너지 타운 - 에너지 자급도시의 비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베드제드 홈페이지 (<http://www.bioregional.com/>)

□ 동해안에 풍부하게 매장된 해양에너지·해양 자원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연구·탐사 거점」을 구축

- 경북 울진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연구원,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기존의 R&D 기반과 연계한 「동해 해양과학 클러스터」를 조성
- 울산지역의 기간산업 기반과 연계한 「해양 자원개발 장비·시설 연구단지」를 조성
- 동해 심해에 부존된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생산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해양연구·탐사 거점>



<(전략1)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구상도>

나. (전략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1) 현황 분석

□ 동해안권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국가 기간산업 기반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석유화학(세계5위 생산규모), 조선(세계1위), 자동차(세계5위 점유) 등

- 6대 기간산업의 부가가치 현황은 조선산업(전국대비 43.3%), 철강산업(39.3%), 석유화학산업(34.5%), 자동차산업(33.7%) 순임
- 석유화학산업(30.9), 조선산업(42.8%)은 울산에 집적해 있으며, 경북은 철강산업(30.8%)이 두드러지나, 강원은 산업기반이 다소 미흡

<기간산업 부가가치 현황 ('08년)>

(단위 : 억원, %)

구분		합 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국		1,327,756 100	376,720 100	218,024 100	334,263 100	398,749 100
동해안권 3개 시·도	소계	490,436 36.9	126,917 33.7	94,472 43.3	131,378 39.3	137,669 34.5
	울산	349,707 26.3	107,113 28.4	93,405 42.8	26,060 7.8	123,129 30.9
	강원	6,742 0.5	3,392 0.9	99 0.0	2,410 0.7	841 0.2
	경북	133,987 10.1	16,412 4.4	968 0.4	102,908 30.8	13,699 3.4

주) 시·도(시·군·구) 산업분류별 주요지표(10인 이상) 자료

□ 발달된 산업기반에 비해 R&D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

- 2009년 현재 전국에는 총 105개의 지역혁신센터(RIC)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 중 7개(울산2, 강원3, 경북2)가 동해안권에 위치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09년)>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	분 야
전 국	105	
동해안권	7	
울산해안권	2	
남 구	2	네트워크 기반 자동화 지역혁신센터, 기계부품 및 소재 특성평가 지역혁신센터
강원해안권	3	
강릉시	3	파인세라믹 지역혁신센터, 동해안 해양생물자원 지역혁신센터, 첨단해양공간개발 지역혁신센터
경북해안권	2	
포항시	1	금속재료 지역혁신센터
경주시	1	친환경전지에너지 설비 및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 동해안 3개 시·도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전국대비 10.2%인 5,934개 이며, 산업단지는 전국대비 20.7%인 169개가 분포

-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업체수보다 전국대비 비중이 높은 15.7%로, 이는 울산·포항의 대규모 기업 집적이 그 원인으로 작용

<제 조업 현황 ('08년)>

(단위 : 개, 천명, 백만 원/인, 조원,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개소	비율	인원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국	58,459	100	24,543	100	11,229,860	100	3,676,303	100
동해안권	5,934	10.2	3,863	15.74	3,059,406	27.27	881,931	23.99
울산해안권	1,233	2.1	1,465	5.97	1,671,552	14.92	395,967	10.77
강원해안권	728	1.2	272	1.11	1,297,115	0.80	34,842	0.95
경북해안권	3,973	6.8	2,127	8.67	90,739	11.54	451,122	12.27

주 :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 또한, 전국대비 국가산업단지 비중과 산업단지 생산액 비중도 대규모 기업 집적의 원인으로 각각 22.5%, 32.1%로 높은 편임

<산업단지 현황 ('09년)>

(단위 : 개소, 만인, 억원)

구 분	단지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전국	동해안 3개시도	전국	동해안 3개시도	전국	동해안 3개시도	전국	동해안 3개시도
계	815	169 (20.7)	54,600	5,084 (9.3)	147.4	25.8 (17.5)	6,992,688	2,247,472 (32.1)
국가 산업단지	40	9 (22.5)	33,934	2,146 (6.3)	84.5	18.3 (21.6)	4,469,492	2,068,904 (46.3)
일반 산업단지	368	62 (16.8)	15,320	1,253 (8.2)	50.6	3.8 (1.5)	2,161,962	85,788 (4.0)
도시첨단 산업단지	6	1 (16.7)	107	-	0.1	-	869	-
농공단지	401	97 (24.2)	5,239	1,685 (32.2)	12.3	3.7 (29.9)	360,365	92,780 (25.7)

- 동해안은 수심 200m 이상의 심해자원인 해양심층수를 비롯한 바이오 자원이 풍부하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도 상당부분 구축
-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를 시작, 동해안에는 현재 9개소의 취수해역 지정
 - * 해양심층수 개발·상품화 국가는 5개국에 불과(미국, 일본, 노르웨이, 타이완, 한국)
 - ** 일본은 현재 14곳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 식품·음료·레저등 약 2~3조원의 시장을 형성
- 그 밖에도 한해성 수산자원, 해수자원 등 해양 바이오·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해양연구원 동해기지,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 등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 입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현황>

취수해역이름	반지름(km)	수심(m)	최대취수량(톤/일)
고성 오호	1.6	300/700	5,000
양양 원포	1.0	1,032	2,400
강릉 정동진	2.0	300	10,000
동해 추암	1.5	250	3,000
속초 외옹치	1.5	600	20,000
삼척 증산	0.5	-	5,000
울릉 저동	1.0	700	1,800
울릉 현포	2.0	650	3,000
울릉 태하	1.0	418	2,000

□ 동해안권은 친환경 농업 기반이 비교적 양호하며, 일반 해면 어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어업이 발달

○ 동해안권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총 1,103건으로, 농가수는 9,205호, 면적 6,616ha이며, 인증량은 183,614톤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09년)>

(단위 : 건, 호, ha, 톤)

구 분	건 수	농가수	면 적	인증량
동해안권	1,103	9,205	6,616	183,614
강원해안권	452	1,720	1,393	65,692
강릉시	140	608	743	49,124
동해시	48	152	70	629
속초시	8	10	9	282
삼척시	209	615	399	10,063
고성군	19	129	72	1,990
양양군	28	206	100	3,604
경북해안권	576	6,716	4,559	97,595
포항시	154	2,075	1,577	36,628
경주시	135	1,602	991	32,858
영덕군	50	750	598	11,167
울진군	232	2,115	1,249	16,652
울릉군	5	174	144	290
울산해안권	75	769	664	20,327

- 동해안권 어획량은 '08년 현재 266,789톤으로 전국 어획량의 7.9%에 불과하나, 일반해면 어업생산량은 전국의 18.7%를 차지
- 오징어(강릉·동해·울릉 등), 명태(고성), 대게(울진·영덕 등), 멸치(경주), 과메기(포항), 돌미역(울산) 등 해안선을 따라 특산물 벨트를 형성

<어획량 및 어업구조 ('08년)>

(단위 : 톤, %)

구 분		합 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		원양어업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전 국		3,361,255	100	1,284,890	38.2	1,381,003	41.1	29,180	0.9	666,182	19.8
동 해 안 권	합계	266,789	100	240,748	90.2	21,845	8.2	4,196	1.6	0	0.0
	울산	26,127	100	14,639	56.0	11,488	44.0		0.0		0.0
	강원	63,076	100	58,148	92.2	2,068	3.3	2,860	4.5		0.0
	경북	177,586	100	167,961	94.6	8,289	4.7	1,336	0.8		0.0
동해안권 / 전국		7.9%		18.7%		1.6%		14.4%			

2) 발전 방향

- 동해안권의 발달된 국가기간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 발전의 토대 마련
- 산업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계획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추진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적 환경으로 개선
- 산업시설에 비해 열악한 연구개발 기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
- 권역 내의 신산업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심층수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과 세라믹·마그네슘 등 신소재 산업을 육성
- 친환경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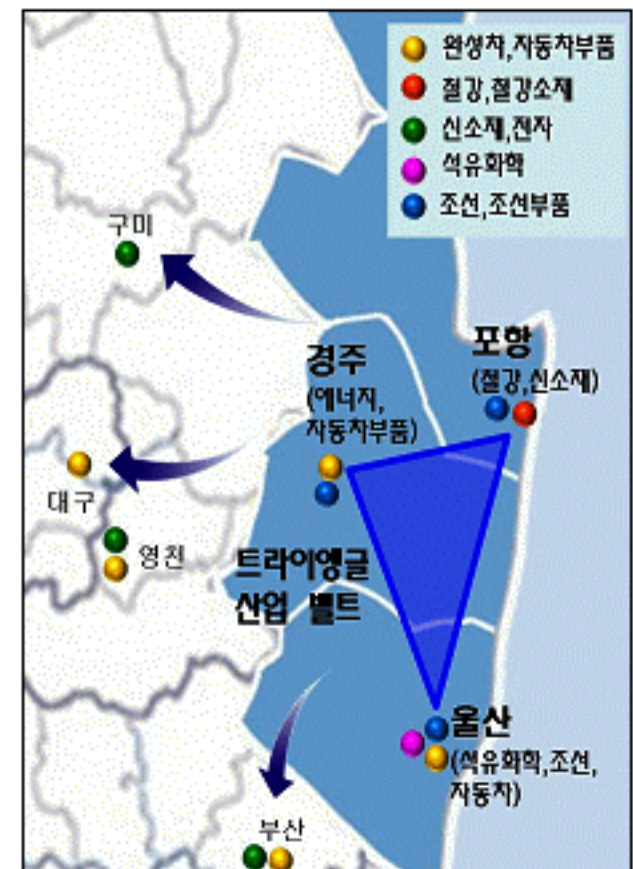
3) 주요 프로젝트 구상

□ 포항~경주~울산을 연계하여 철강·부품·소재·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 중심의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구축

○ 산업기반과 연구개발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철강·신소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포항 첨단소재 R&D 클러스터」구축

○ 경주에 방폐장 건설,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천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에너지산업 중심의 「그린 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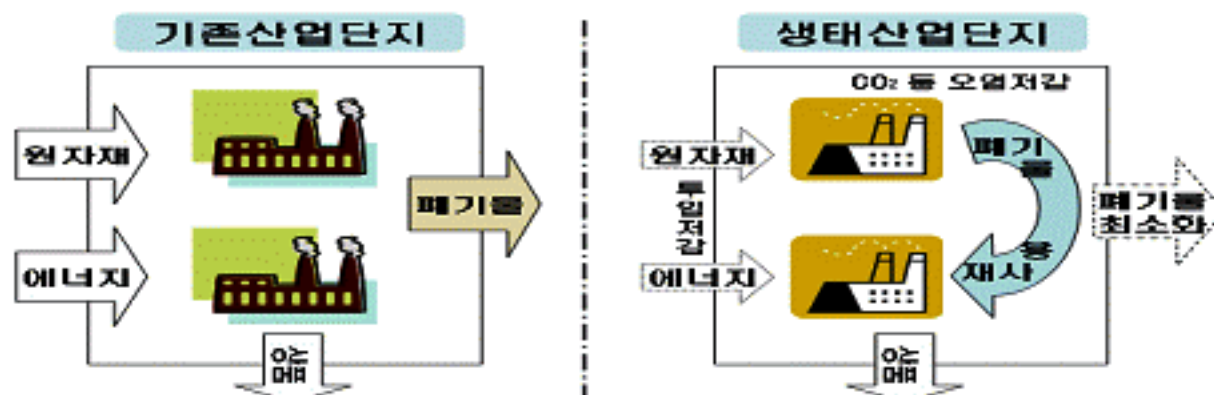
* 원자력, 2차전지 등 에너지관련분야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업종 유치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 연구와 생산이 복합된 첨단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해양·요트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울산 기간산업 고도화 거점」을 육성

○ 울산과 포항의 국가산업단지를 에너지 효율 향상, 폐기물 재활용 강화를 통한 자원 순환형의 「생태산업단지*」로 조성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

- 산업용지 공급 등의 문제로 울산·경주권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산업체를 집적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시범 지정을 추진

* 개별공장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지정·개발('07년 도입)

** 현재 경기 화성에 2곳 지정

-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위해 거점별로 신소재·해양바이오 등에 대한 R&D 중심의 「신소재·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 마그네슘/세라믹(강릉)·비철금속(동해)·방재/방연(삼척) 등 신소재 특화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 해양심층수를 비롯한 해양바이오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원권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신소재·바이오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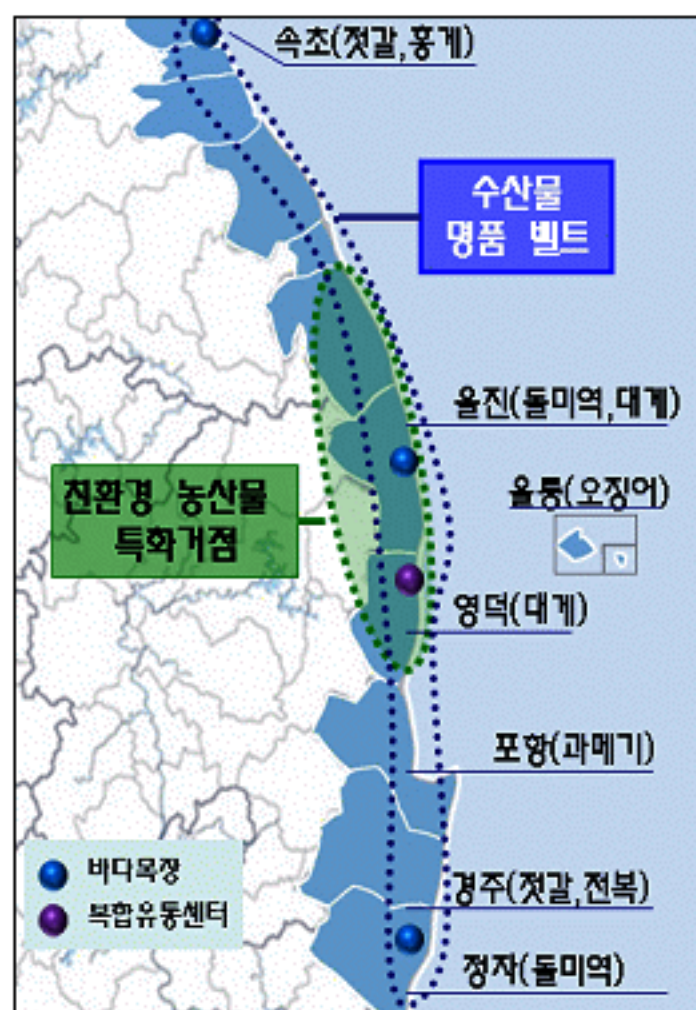
- 「부품소재 개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 울산권에 특화된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수송기계 부품소재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 경주권에는 양성자 가속기 건설과 연계한 생명과학 산업단지를,
 - 포항권에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

□ 명품 농수산물 특산물을 고품질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유통·연계관광 등의 「청정 농수산물 특화벨트」를 육성

○ 친환경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
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특화 거점」을 조성

* 영덕·울진 등 로하스인증지역, 삼척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등

○ 어류의 생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바다목장*을 조성
하고, 한류성 수산동물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 하는 등 「청정 수산물
R&D 및 생산기반」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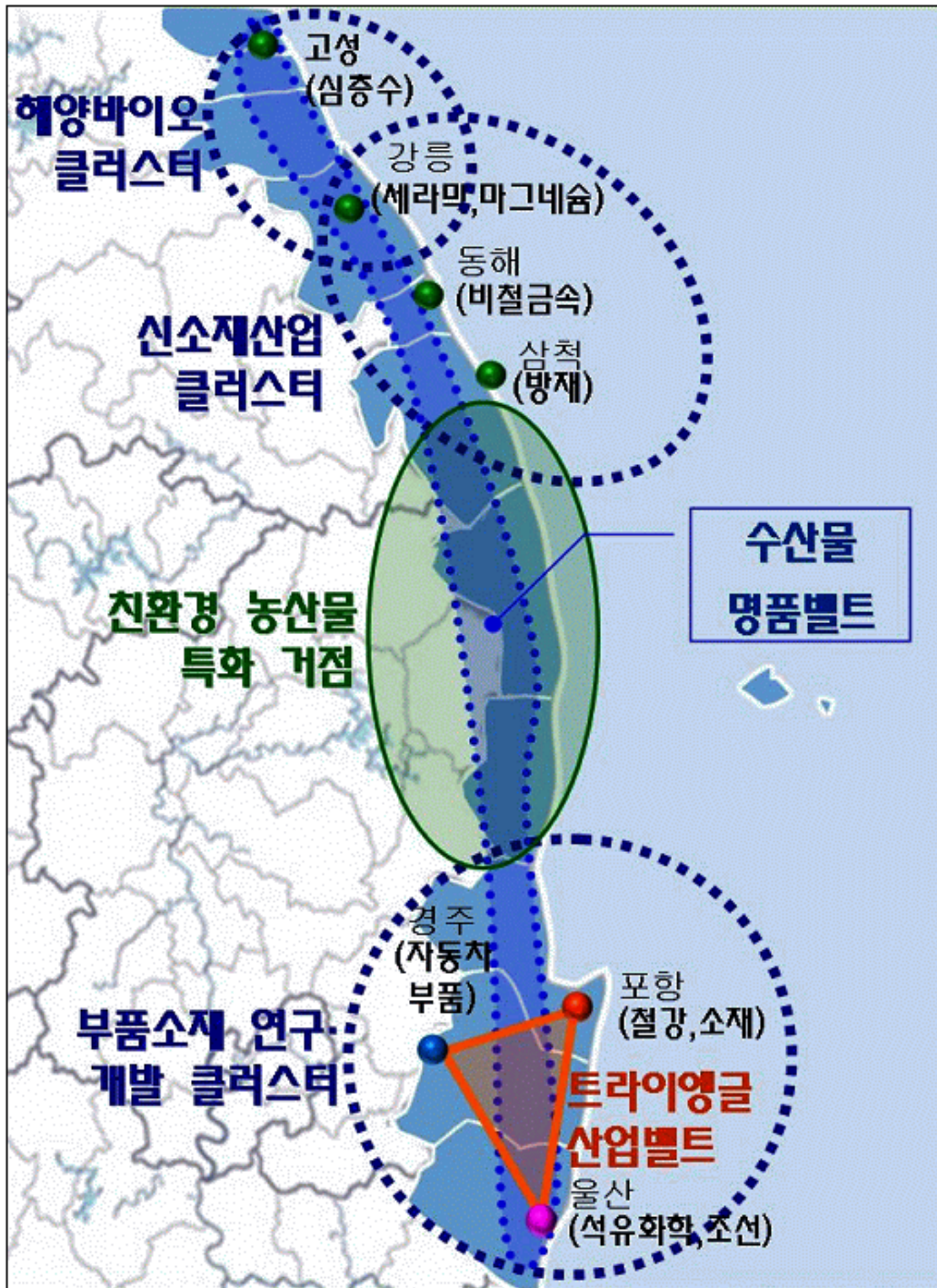
<청정 농수산물 특화벨트>

* 울산 울주, 강원도 고성, 경상북도 울진 등

○ 지역별로 특화된 수산물 명품을 벨트화*하고, 수산물 물류기능을
개선·확충하는 등 「청정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 수산물 특화 브랜드를 적극 개발하고,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선진유통체계 구축으로 판로 확대를 도모

* 속초(젓갈·홍게)~울진(멍게젓갈·돌미역)~영덕(대게)~포항(과메기)~
경주(젓갈·전복)~울산(돌미역)~울릉도(오징어) 등



<(전략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구상도>

다. (전략3) 국제관광 거점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1) 현황 분석

-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경제성장 문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관광관련산업은 2014년 세계 GDP의 10.9%, 관광관련 종사자는 총고용자의 8.6%로 예상(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 국제관광객수는 1995년 5.6억명에서 2020년 15.6억명으로 증가예상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이 세계 관광시장에서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관광시장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점유율은 2020년 약 25%(397백만명)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세계무역기구, WTO)
- 맑고 청정한 동해바다, 다채로운 지형과 해안경관 등 동해안권 특유의 청정한 이미지의 자연·생태적 관광자원을 보유
 - 동해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 연안오염도가 가장 낮은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정한 이미지를 형성
 - * COD : 동해 0.9mg/L, 서해 1.3mg/L, 남해 1.3mg/L
 - 동해안은 해수욕장과 석호가 발달한 북부와 해안단구가 발달한 남부로 구분된 고유한 해안경관을 간직하고 있음
 - 해안을 따라 설악산, 오대산 등의 명산을 포함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악축이 형성되어 있음

<동해안권 자연공원 지정 현황 ('08)>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합 계
전 국	20	31	27	78
동해안 3개 시·도	8	3	5	16
동 해 안 권	4	3	5	12

- 동해안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며, 해안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를 간직
 - 불국사·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의 중심지인 강릉이 위치
 - 강릉단오, 동해별신굿, 영덕월월이청청 등 독특한 무형유산이 풍부
 -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 선사문화를 비롯하여 고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
 - 백두대간의 해안축을 중심으로 산악의 불교자원, 해안선을 따라 독특한 정주형식을 보여주는 해안 유교문화 자원 등이 잘 보존
- 동해안권 유일의 유인 도서인 울릉도·독도는 원시림과 해양성 기후로 인한 다양한 생태·생물자원과 영토수호의 상징성을 보유
 -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독특한 해양지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국가 우산국의 문화유산을 간직
 -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특한 지형·지질, 식생, 조류, 심해 생물 등의 생태자원을 보유
 -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국토의 최동단이라는 점에서 영토수호 측면에서의 상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

- 동해안권은 환동해권의 관광교류가 용이한 공간에 입지하고 있어 환동해권 국제교류 및 관광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
 - 일본의 서해안, 중국의 길림성 및 러시아 연해주와 육상 및 해상 연계가 가능하여 대륙진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유
 -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아시안하이웨이(AH) 등 육상 교통망이 정비될 경우 국가간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동해안권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조성을 보유한 지역으로 문화적 가치 제고를 통한 창조지역개발 및 창조산업 육성이 용이
 - 경주의 역사유적과 화랑정신, 강릉 단오 등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 산재
 - 강원·울릉의 심층수,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자원이 풍부

<창조지역 개발 주요 사례>

- 지역문화·역사 : 안동(퇴계 이황 등 선비문화), 영월(박물관 고을), 장성(홍길동), 진안(원촌마을 간판) 등
- 교육·복지 : 단양(한드미 산촌유학프로그램), 창녕(외국어교육 특구) 등
- 녹색성장 : 인제(남전1리 마을기금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 평창(대관령 바람마을 의야지) 등
- 특화자원 : 진도(신비의 바닷길), 정선(아리랑), 정동진(해돋이), 태백(눈), 울릉도(심층수), 고성(명태), 화천(산천어), 강릉(초당두부) 등

2) 발전 방향

- 설악권·경주권에 형성된 관광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강릉·경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최대한 활용
- 산악, 산림, 해수, 온천, 청정해안 등을 가족중심의 체험형 휴양·헬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거점별로 마리아항을 조성
- 해안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안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촌별로 형성된 소규모 어항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동해안 전체를 일주하는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하천 등과 연계한 에코트레일, 생태탐방로 등을 적극 개발
- 지역의 특화된 역사·문화 자원, 지역 정체성 등을 활용하여 문화중심의 창조지역 개발 및 창조산업을 창출

3) 주요 프로젝트 구상

- 설악·경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존 관광단지의 리모델링과 울릉도 관광 섬 개발 등을 통해 「**환동해권 국제관광 교두보**」를 구축
 - 기존 설악산 관광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및 산악연계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설악권 국제 관광 벨트**」를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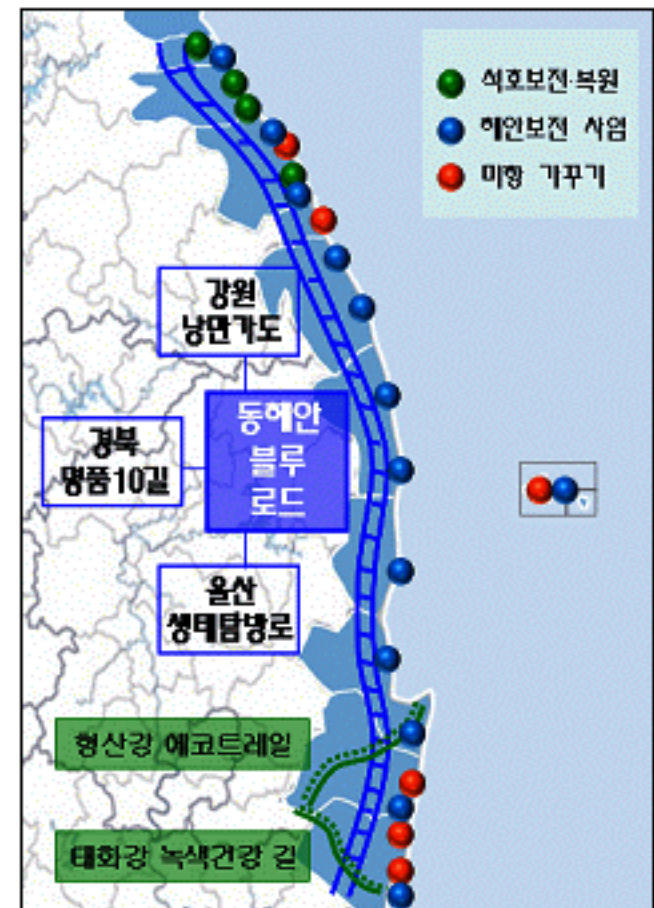
<환동해권 국제관광 교두보>

□ 수려한 해안경관을 일주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이를 인접한 산(山)·강(江)과 연계하는 등 동해안권의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

○ 해안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동해안
일주형의 「동해안 블루투어로드」 조성

○ 대표적 하천인 태화강과 형산강의
생태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천
·문화 연계형의 에코트레일(자연친화적
생태구역, Eco-trail)」 조성

* 형산강 해맞이길, 항구길, 보부상길 등
13개 테마별 탐방로, 역사생태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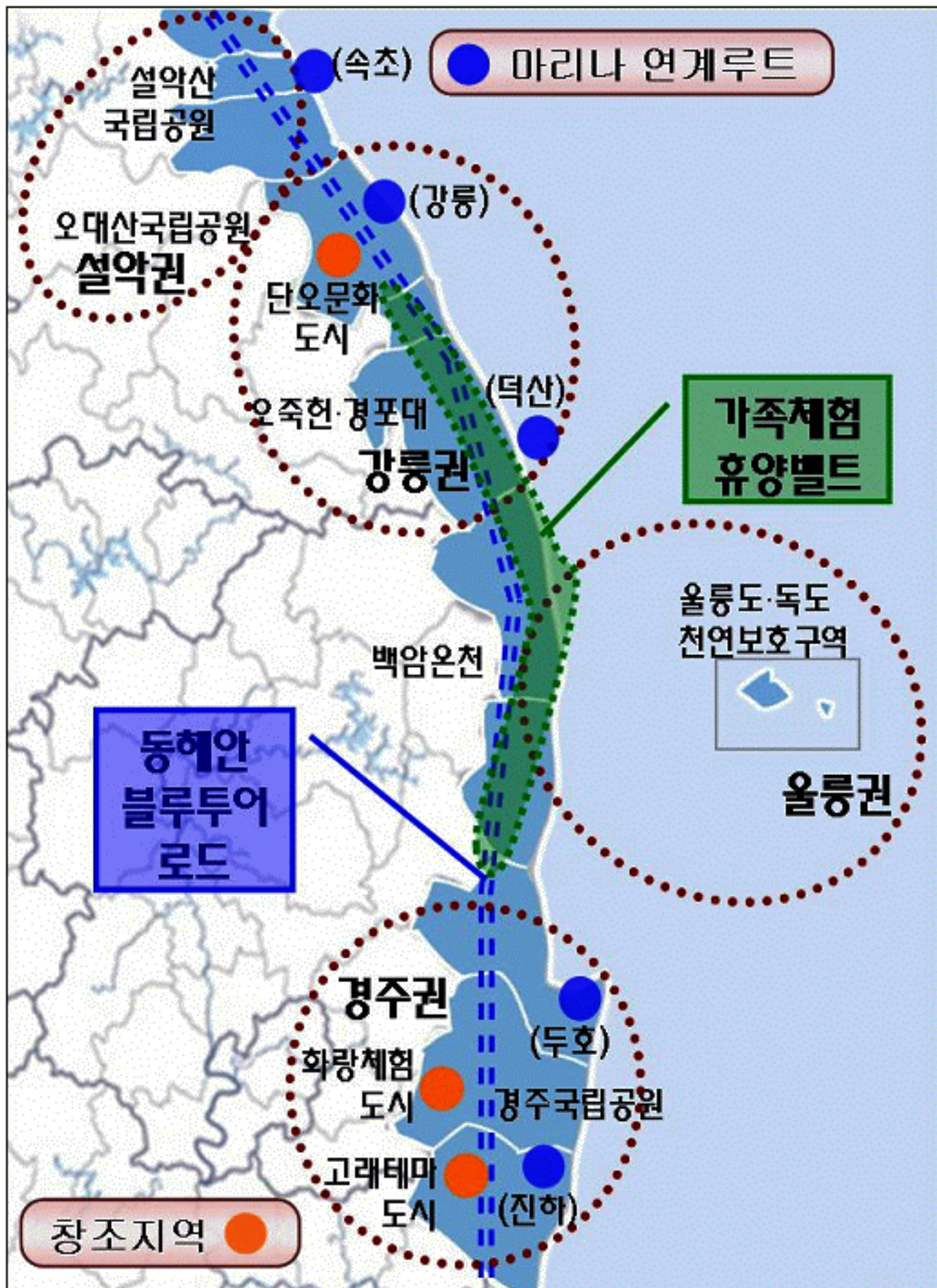
<생태관광 기반>

○ 울산지역의 대표적 산악 관광자원인 신불산, 가지산 등을 백두
대간과 연계하여 등산, 산악레포츠, 온천 등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중심의 「영남 알프스 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

* 기존 산악관광이 백두대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낙동정맥 및 신불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7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영남 알프스
지역과 유기적 연계 필요

○ 연안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동해안 해안
보전」 및 「동해안 석호 보전·복원」 사업을 추진

○ 소규모 어촌 및 어항을 다목적복합어항으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별로 「동해안 미항 가꾸기」사업을 전개



<(전략3) ‘국제 관광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구상도>

라. (전략4)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1) 현황 분석

□ 동해안권은 권역을 종단하는 고속국도가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태이며, 동서축의 내륙 연계 도로망도 미흡한 실정

- 횡축(동-서)은 영동고속국도와 대구~포항 고속국도가 주간선축을 담당하며, 종축(남-북)은 동해고속국도 동해~강릉구간(60.2km), 부산~울산(47.2km) 구간만 개통된 상태이며 이외 지역은 일반 국도만 연결
- 동해안권의 남-북 종단 도로는 국도 7호선이 유일하여 역내 교류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불리
- 국도 7호선의 경우 '89년부터 시작된 4차로 확장사업이 고성, 동해~강릉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시가지 통과 구간 산재 등으로 인해 통행여건이 열악
- 국도 7호선이 아시안하이웨이 6번 노선(AH6)*으로 지정되어, 향후 북한, 중국 및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내륙 횡단 간선망으로서의 역할 기대

* 부산(대한민국 기점)~경주~강릉~원산(국도 7호선)~함흥~성진~블라디보스토크~하얼빈 등

□ 현재, 동해안권 철도는 12개 노선에 42개의 역이 개설되어 있으나, 권역내의 연결은 물론 내륙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단선철도의 비중이 높은 편

- 주요 철도는 동해남부선(포항~부산), 영동선(강릉~영주), 중앙선(서울~경주) 등 3개 노선 및 9개 지선이 있으나 통행편수 및 이용빈도는 높지 않은 실정
- 중앙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등 동해안권에 연결되는 주요 철도노선의 복선화율은 5.2%로 전국평균 42.4%의 1/8수준에 불과하여 물류 및 여객운송의 효율이 매우 저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완공으로 울산과 경주에 KTX역이 신설되었고, 향후 포항까지 인입노선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
- '07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제진역~금강산역)이 구축됨으로써 향후 TCR, TSR 등과 연결 가능

<주요 철도노선 현황 ('08년)>

(단위 :km)

구 분	총 계	단선 구간	복선화 구간			
			계	복선	복복선	3복선
전 국 (비 율)	3,381.2 (100.0%)	1,948.6 (57.6%)	1,432.6 (42.4%)	1,313.0 (38.8%)	106.0 (3.1%)	13.6 (0.4%)
동해안권 (비 율)	779.2 (100.0%)	738.3 (94.8%)	40.9 (5.2%)	40.9 (5.2%)	- (0.0%)	- (0.0%)
중앙선(청량리~경주)	354.3	344.2	38.8	38.8	-	-
금강삼각선(금강~나원)	2.2	2.2	-	-	-	-
동해남부선(부산~포항)	145.1	143.7	2.1	2.1	-	-
동해북부선(제진~감호)	7.0	7.0	-	-	-	-
괴동선(효자~괴동)	5.6	5.6	-	-	-	-
장생포선(울산~장생포)	3.6	3.6	-	-	-	-
울산항선(울산~울산항)	4.6	4.6	-	-	-	-
온산선(남창~온산)	8.6	8.6	-	-	-	-
영동선(영주~강릉)	193.6	193.6	-	-	-	-
묵호항선(동해~묵호)	5.9	5.9	-	-	-	-
삼척선(동해~삼척)	12.9	12.9	-	-	-	-
북평선(동해~삼화)	6.4	6.4	-	-	-	-

주 : 철도 연장은 도시철도를 제외한 수치

- 동해안권에는 양양, 울진, 울산, 포항 등 4개 공항이 입지해 있으나 현재 울산공항과 포항공항만 정상 운영
-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대형항공기 취항은 취소되고, 현재 20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만 취항(김포~양양~김해 노선)
 - '09년 현재 울산공항과 포항공항의 연간 여객수는 각각 101만 명과 30만 명으로 전체 국내선 여객의 3% 내외에 불과
- 동해안권에는 무역항 7개, 연안항 4개 등 총 11개의 지정항만이 입지하고 있으며, 2개의 신항만이 건설 중
- 무역항으로는 속초항, 옥계항, 동해·묵호항, 삼척항, 호산항, 포항항, 울산항 등 7개 항만이 입지

<무역항 시설 및 하역능력 현황 ('08년)>

구 분		안벽 (m)	방파제 (m)	물양장 (m)	접안 능력 (척수)	일반창고 (톤)	아적장 (톤)	하역능력 (천톤)	하역 능력 비중 (%)
전 국		130,250	70,794	60,943	775	8,949,651	43,536,327	793,015	100
동해안권		33,944	25,079	7,382	185	242,050	5,620,364	162,320	20.5
울산 해안권	울산 항	16,602	4,878	81	97	73,000	1,843,336	51,167	6.5
강원 해안권	삼척 항	776	1,030	1,388	7	-	107,139	8,964	1.1
	동해 항	3,412	2,110	-	15	113,690	657,000	30,072	3.8
	묵호 항	1,271	1,465	925	6	-	60,000	6,030	0.8
	옥계 항	874	2,003	-	5	-	164,889	10,145	1.3
	속초 항	1,187	1,541	2,007	7	1,980	46,000	579	0.1
경북 해안권	포항항	9,822	12,052	2,981	48	53,380	2,742,000	55,363	7.0

주 1) 2009년 12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시 동해·묵호항으로 통합 지정 함. 즉 항만의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2개의 항만시설을 1개의 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나, 각종 시설 관련 통계는 2개 항만을 별도로 취급.

2) 물양장은 수심이 약 4.0m 이내로 1,0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3) 잔교는 바다위에 설치하여 육지와 교량형태로 연결된 부두(floating pier)

4) 접안능력은 당해 부두에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크기와 척수

5) 하역능력은 일정시간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표준처리능력

- 포항 영일만항(19년까지 16선석 예정), 울산신항(19년까지 38선석 예정)의 경우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2단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08년 전국 항만 수출입화물을 기준으로 울산항은 약 15%를 처리하여 부산항(약 21%), 광양항(약 18%)에 이어 3위, 포항항은 약 6%로 인천항(약 12%)에 이어 5위를 차지
- 울산항, 포항항 외에는 대부분 시설이 낙후한 소규모 항만이 산재해 있고 거점항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항만은 미비
- 컨테이너 처리실적의 경우, 부산항이 전국의 75%를 처리하는데 비해 동해안권 최대 항만인 울산항은 전국의 2% 수준에 불과

<국내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 ('08년)>

(단위 : TEU)

구 분	물동량	비 율	비 고
전 국	17,926,748	100	
부산항	13,452,768	75.0	
광양항	1,822,449	10.2	
인천항	1,703,362	9.5	
동해안권 계	408,221	2.3	
울산항	400,581	2.2	
동해항	4,333	0.1	
속초항	3,307	0.0	

주 :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는 20ft 컨테이너를 1TEU로 환산한 단위

- 동해안권에는 전국 30개 일반화물터미널 중 포항, 울산, 강원 임동 화물터미널 등 총 3개의 화물터미널이 입지하는데 불과

2) 발전 방향

- 동해안권내의 남북축, 동해안권과 내륙권간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 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 개선
- 지역별 발전거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항만, 산업단지 등의 연결 교통망과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해 역내 산업발전 견인
-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항만별로 기능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동해권 교류를 활성화

3) 주요 프로젝트 구상

- 환황해권 및 내륙권과의 동서 연계와 권역내의 남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 기간 교통망」을 구축

- 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하고 장차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조성하기 위해 동해안 종단철도(부산~고성)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기 착공된 부산~울산~포항 복선전철 및 포항~삼척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강릉~고성구간 건설도 추진



<초광역 기간 교통망>

* 부산~울산~포항 복선전철화(142.3km), 포항~삼척 단선철도 부설(166.7km)

- 장기적으로 국제육상교통망인 TCR*, TSR** 등과 연결하여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의 교류협력 거점 인프라로 육성
- *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로 중국의 렌윈항(連雲港)에서 시작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연결
- ** 시베리아 철도(Trans Siberian Railway)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대지를 가로질러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
-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계획에 따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동해안 일주 고속도로(울산~고성) 건설도 중장기적으로 추진
- 환동해권 및 동북아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육상교통망인 아시안 하이웨이(AH)와 연결하는 방안 검토
-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남북축)
 - 남북7축(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 남북7축(동해~삼척,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 동서 연계 강화를 위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춘천~속초 복선전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경춘선(춘천~서울)과 연결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동서 연계의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동서축)
 - 원주~강릉 복선전철
 - 동서2축(춘천~양양) 고속도로
 - 동서5축(봉화~울진) 간선도로
 - 동서6축(영덕~상주) 고속도로
 - 동서8축(울산~함양) 고속도로

□ 권역내 지역 간, 산업거점 간 연계 강화와 지역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거점 연계 교통망」을 확충

○ 자동차 등 울산권의 주요 기간산업을 연결하는 「오토벨리路」의 미개설 구간을 조기에 개설

○ 울산 신항 및 포항 영일만항, 동해항 등 산업 거점항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항만연계 교통망」을 확충

- 울산신항 배후도로 및 신항 인입철도를 건설하여 물류수송 원활화 도모

-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 등을 통해 항만,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 동해항 인입철도 건설로 항만 기능 활성화

○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울산 및 신경주 「KTX 역세권 연계 교통망」을 확충

- 고속철도 역세권과 시가지간 연결도로 등 연결교통망을 확충하고 환승기반을 구축하여 역세권을 활성화

○ 울릉도의 대내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일주도로를 조기에 개통하고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경비행장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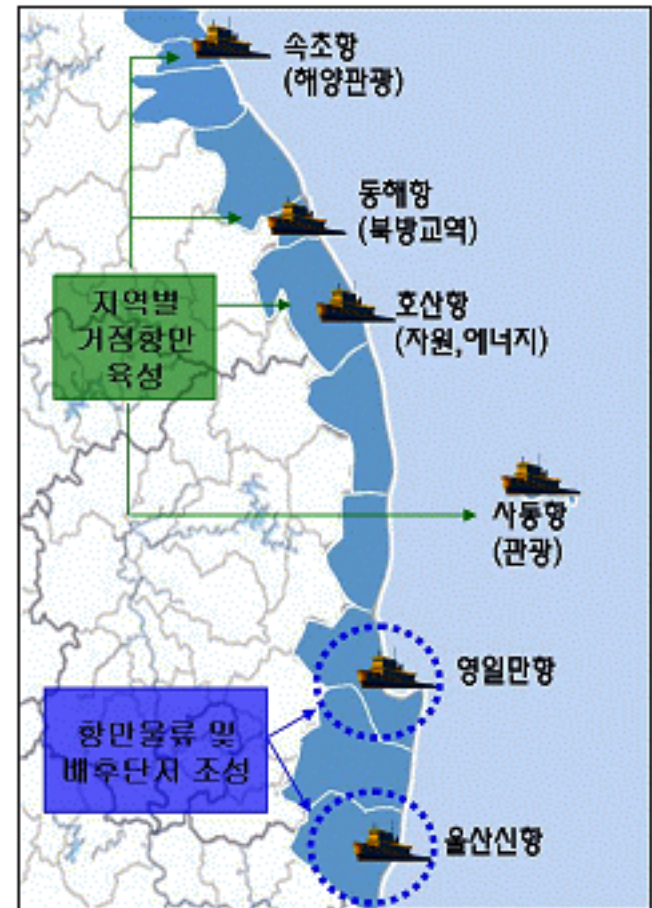
○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첨단교통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



<발전거점 연계교통망>

□ 지역별 특화 거점항만 개발, 항만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환동해 거점 항만**」을 조성하고 국제 교류·협력을 활성화

- 속초항을 설악관광권과 연계하여 산업물류 기능과 함께 크루즈, 마리나 등의 기능을 복합화한 「**해양 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
- 동해항을 통일시대 대비 「**북방교역의 거점 항만**」으로 특화 개발
- 강원 삼척 호산항을 LNG인수 기지 건설과 연계하여 「**자원 및 에너지 거점 항만**」으로 육성



〈거점항만 및 물류비즈니스 거점〉

- ※ 중장기적으로 항만물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강릉~동해~삼척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 울릉도·독도의 영토수호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동항 2단계 개발로 「**영토수호 거점항만**」을 조성
- 울산신항 및 포항영일만항 건설을 조기 완공하고, 항만 배후에 비즈니스 기능이 강화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도모
- 항만 배후의 자유무역지역, 부품소재전용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환동해권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국제산업거점으로 육성
- * (중국)노동력과 시장, (러시아)토지와 기초자원, (일본)시장과 자본·기술, (한국)시장과 기술산업 기반

- 북방 및 환동해 경제권과의 교류 촉진 및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교류·협력을 활성화
 - 부산~동해안~러시아~일본 등을 연계하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동량을 확대하고 신노선 개척(유럽항로 등)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
 -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확대·발전시키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포항)을 활용하여 환동해권 교류·협력을 주도
- * 강원도 주도로 '94년 창설, 5개국 5개 단체 참여
- ** 경상북도 주도로 '93년 창설, 6개국 74개 단체 참여, 포항에 상설사무국 설치



△(저략4) '이프라 화학 및 화학해권 비류협력 강화' 구상도△